

‘觀稼亭’의 경계구조분석을 통한 공간적 특성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Gwan-gajung’ by Analysis of Boundary

김미나* 김경희**
Kim, Mi-na Kim, Kyou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And I'm trying to search characteristics of boundary in Korean traditional housing. In this study, I have analyzed boundary of 'Gwan-gajung'. It is constructed on a square shaped plan, there is an elegant middle court, and a counter-roofed shrine house in the rear of the inner building.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boundary is made based on what has been perceived as the proper structure,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openness, inside and outside parts and orientation. As a critical factor to spatial qualities, boundary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nnection and disconnection, background and atmosphere, and inferior and superior relations and hierarchical order from the view of space. The result of study is like followings. The characteristics of boundary in Korean traditional housing is 1. one way direction of penetrability, 2. having the face and the back 3. orientation 4. duplication.

Keywords : boundary, spatial characteristic, traditional houses, Gwan-gajung

1.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安穩한 영역을 갖고 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역 주변의 경계에 구조를 만듦으로써 외부와 차별화된 내부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서 거주한다.

경계의 자리에 만들어지는 구조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는 공간 사용자들 간의 친밀도나, 공간 기능상의 轉用가능성 여부, 공간의 위계질서 등에 따라 연결되거나 차단된다.

한국전통주택의 공간성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경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중기의 대표적

班家인 觀稼亭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경계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관가정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통주택 유구 중에서 시대성, 계층성, 가치성, 독자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가정을 선정하였다.

먼저 시대적으로는 조선 중기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부부별침과 함께 유교규범이 주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계층적으로는 상류계층의 주거를 대상으로 한다. 민가보다는 상류주택에서 시대적, 사회적 특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치성은 현재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현대적 변용이 없는 유구로서, 건축적으로 분석의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독자성은 다른 주택과 비교되어지는 주택 고유의

*정회원, 건축공학박사

**정회원, 부산정보대학교 전임강사

특성이 있어야 한다.

위의 4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가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관가정은 1514년에 지어진 조선 중기의 건축물이며, 우재 손증돈의 주택이자 경주 손씨 대종가로 班家의 격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현대적 변용은 없으며,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끝으로 관가정은 경북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뜰집의 유형인데, 안채공간구성의 특성과, 사랑채로의 진입방식, 안채의 외벽구성의 측면에서 다른 뜰집의 유구와 다른 독자성을 갖추고 있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觀稼亭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관가정의 原型에 대한 역사적 고찰연구¹⁾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²⁾, 그리고 觀稼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³⁾가 있다. 본 연구와 주제가 유사한 노동성의 연구에서는 관가정의 공간구성기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가정의 의미체계, 구성적 개념과 형상화체계, 인지체계를 분석 내용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공간성 분석의 틀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가정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의 범위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의 경계구조로 한정하고 있으며, 분석의 사항으로는 경계구조의 투과성과 투과의 방향성을 위주로 고찰한다.

공간관계를 표현하는 경계구조의 가장 뚜렷한 성질은 투과성이다. 투과성은 구조물의 재료와 구조방식에 의해 달리 나타나는데,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감각전달의 정도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난다. 투과성이 낮은 경계구조는 인간으로 하여금 차단감을 느끼게 하고, 인접한 두 공간을 단절시킨다. 반대로 투과성이 높은 경계구조는 인접한 두 공간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공간의 개방과 폐쇄, 연결과 차

단은 경계구조의 투과성을 조절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계구조는 투과의 방향성에 의해 공간 사이의 관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접한 두 공간의 양방향에서 투과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두 공간은 상호 연결적이며 대등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투과가 한쪽 공간에서 다른 쪽 공간으로만 이루어지고 반대로는 투과가 장애를 받을 경우에 가로막는 측과 가로 막히는 측, 보는 측과 보여지는 측과 같은 우열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경계구조의 투과성과 투과의 방향성 분석을 통해서 공간과 공간 사이의 연결과 차단, 우열 관계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觀稼亭의 경계구조분석

1. 관가정의 공간구성

1) 관가정의 평면

觀稼亭은 보물 제442호로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514년 愚齋 孫仲暉(1463~1529)이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觀稼亭은 次男이던 孫仲暉이 長孫이 된 후부터 대종가로 역할하기 시작하였으며, 1924년에 서백당으로 종가를 옮기기까지 오랜 세월 경주 손씨 대종가였다.

觀稼亭은 경상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뜰집의 유형이다. 뜰집은 主建物の 평면이 口자 모양을 이룸으로서 건물의 안쪽에 뜰(안마당)을 가지고 있고 지붕이 모두 연결된 집을 말한다⁴⁾. 관가정은 뜰집 중에서도 날개집인데, 이는 집의 평면이 口字 外廊으로 방이나 마루 또는 누마루가 돌출되어 있는 집의 형태이다⁵⁾.

뜰집에서 안채의 공간배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정지-안방-마루-상방이 일렬로 배치되면서 안마당의 전면으로 안방이 위치하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마당의 폭과 마루의 폭이 동일한 규모의 구성을 이루고, 안방과 상방의 구성이 좌우대칭적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영남지방

1) 손기원(1991), 양동 관가정과 손동만 가옥의 주거사적 연구, 연세대 석론.

2) 서진원(1995), 관가정과 향단 건축구법의 상이한 보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론.

최수영(2001), 觀稼亭과 獨樂堂 溪亭의 自然景觀 導入方式에 관한 比較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8), 통권154호, pp.121-127.

3) 노동성(1999), 觀稼亭의 建築空間 構成手法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12), 통권134호, pp.163-170.

4) 남상환(1996), 조선시대 경북 북부지방 口자형 지붕의 유형 및 형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석론, p.43.

5) 남상환, 앞의 책, p.45

민가의 안채기본형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를 ‘영남형’ 이라고하고, 후자의 경우 중부지방 민가의 안채기본형과 동일한 구성으로 이를 ‘중부형’이라 한다. 뜰집의 안채유형은 중부형이 70% 정도를 차지하여 민가형보다 우세하다⁶⁾.

전형적인 날개형 뜰집공간구성을 갖춘 안동시 임하면의 김중승 가옥과 관가정의 평면을 비교해보면, 안대청의 폭과 안마당의 폭이 동일하며 안방가 상방이 좌우대칭적인 중부형 안채구성과 유사하지만, 정지가 안방에 인접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며 정지가 있을 자리에는 마루가 구성되어 있어 안채공간구성에서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랑채의 평면은 두 가옥이 거의 유사하다.

평면상으로는 안채의 우익랑부분의 공간구성에서의 특이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날개형 뜰집의 공간구성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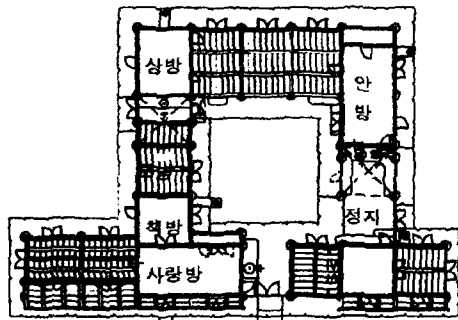


그림 1.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金鍾承 가옥 (출처 : 김화봉, 1999, p.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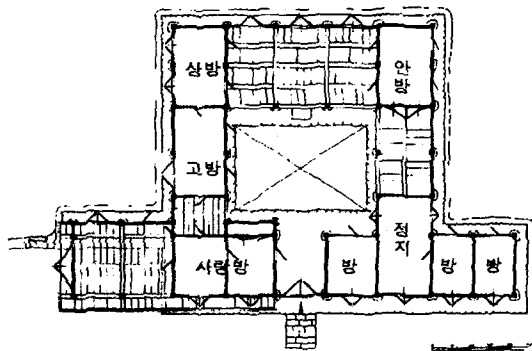


그림 2. 관가정의 평면 (주남철, 1990, p.170. 재구성)

2) 경계구조의 분석범위

관가정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할 경계구조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가정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조합으로 인식하고 1) 방과 마루의 경계선, 2) 채와 마당의 경계선, 3)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전통주택은 방과 마루의 결합으로 평면을 구성한다. 방은 인간이 취침하는 장소로 주택에서 가장 私的인 장소로서 내부로 인식된다. 그러나 마루는 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외부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채의 안방, 안대청, 건넌방 사이의 경계구조와 안방과 직교하는 마루와의 경계구조, 사랑채의 사랑방과 사랑대청 사이의 경계구조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한국전통주택은 채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뜰집은 채(棟)가 口字形을 이루며 폐쇄적인 안마당이 있는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마당에 면한 채의 경계구조와 외부마당에 면한 채의 경계구조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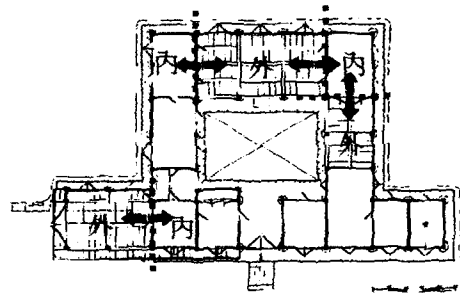


그림 3. 방과 마루 사이의 경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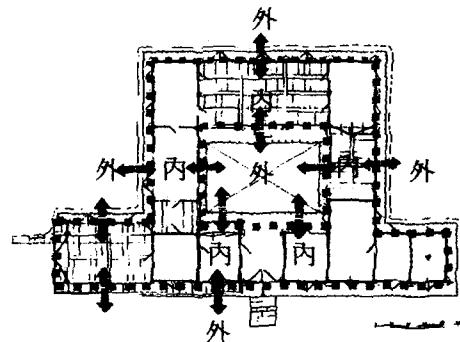


그림 4. 채와 마당 사이의 경계구조

6) 김화봉(1999),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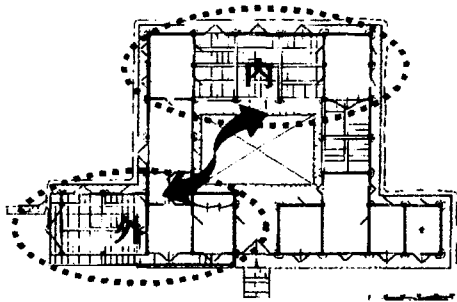


그림 5. 안채와 사랑채 영역사이의 경계구조

마지막으로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을 안과 밖으로 인식하는 內外의식이 있었으며, 주택에서도 안채와 사랑채를 내부영역과 외부영역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채영역과 사랑채영역을 분리 혹은 연결하는 경계구조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⁷⁾.

2. 방과 마루 사이의 경계구조

1) 안방, 안대청, 건넌방의 경계구조

방과 마루는 채(棟)내에서 안공간과 바깥공간으로 인식된다. 안방과 건넌방은 안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3칸 안대청은 두 공간 사이의 시각적 청각적인 투과를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의 경계영역이 되어 두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해준다.

안채는 여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안방과 건넌방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거처로 사용되는데, 불편한 관계의 거주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독립된 공간배치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다.

경계구조의 투과성을 살펴보면, 우선 물리적 차단 성능이 높은 흙벽이 구조의 주체로 되어 있어 공간과 공간은 단절적이다. 그러나 개구부의 재료는 종이로 청각, 후각 등의 물리적 투과성이 높다. 그러나 벽면에서 개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창호의 문살이 시각적으로는 개방감보다는 차단성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대청에 면한 안방과 건넌방의 개구부는 각각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가 있는데 마주 보이는 위



(a) 건넌방-안대청 (b) 안대청-안방
사진 1. 안방, 안대청, 건넌방의 경계구조

치에 서로 반대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것 역시 두 공간 거주자 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도임을 알 수 있다.

2) 안방과 마루의 경계구조

뜰집의 유구 중에 관가정과 같이 안방과 정지가 떨어져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안방과 정지가 분리될 경우에 안방의 난방을 위한 아궁이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주부의 가사노동상의 불편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대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 옆에 마루를 설치한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 이 마루는 제사 시에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배선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방과 마루 사이의 경계구조를 살펴보면 4짝 분합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문은 닫혀있을지라도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과 차단의 양의성을 가지고 있는 경계구조이다.

특히 한국전통주택에서 사용되는 분합문은 계폐방법에 따라 이웃하는 두 공간을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가변적 구조이다. 모두 닫혀있는 경우에는 벽과 같은 차단성으로 폐쇄적인 느낌을, 모두 열려있는 경우에는 빈벽이 되어 개방적이며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안방과 마루는 두 공간이 융통성 있게 연결과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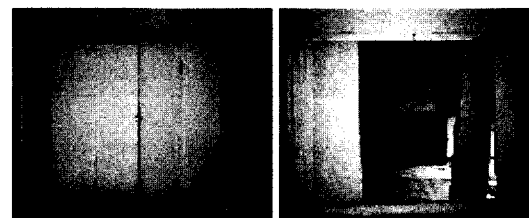


사진 2. 안방과 마루 사이의 분합문

7) 사당은 연구의 범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는데, 문이 가지는 속성상 두 공간은 차단보다는 연결성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안방과 마루 사이에는 사랑방과 사랑대청과 같이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을 위주로 한 손님접대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방과 사랑대청의 경계구조

사랑방과 사랑대청도 분함문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세 짝으로 되어 양쪽은 벽의 역할을 하고 가운데 문짝이 세살문으로 되어 여닫이문 역할을 한다. 분함문은 물리적 차단성이 약할 뿐 아니라 쉽게 제거될 수 있어, 두 공간의 연결적 구성을 쉽게 한다. 따라서 두 공간의 독립성 보다는 연결성이 강한 구성이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사랑방 사이에도 분함문이 설치되어있어 결국 세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된다. 특히 방과 방사이의 상부는 트여져 있어 실제로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랑채는 남성의 공간으로 혈연관계인父子가 함께 기거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거주자들 사이에는 거리감이 적다.

사랑채는 私的 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가족 이외의 손님에게도 개방되는 사회적 공간이다. 한정된 주택공간에서 많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채와 마당의 경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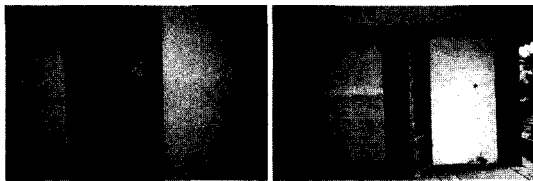
1) 안채와 마당의 경계구조

안대청과 안마당의 경계구조면은 투과성이 매우 높다. 깊은 처마와 기단선은 투명한 境界膜이고, 그 뒤의 대청 기둥 선도 투명한 境界膜을 형성한다. 물리적인 차단성능은 없으나 二重의 투명한 境界膜은 層差를 이루며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준다.

기단은 처마와 함께 마당과 채를 연결하는 전이역할의 경계영역이다. 안채와 안마당에서는 공간의 우열관계보다는 공간의 상호연결성이 강하게 느껴진다. 지면에서 안대청까지의 높이는 86 cm로 양동마을의 다른 주택에 비하면 그다지 높지 않다⁸⁾. 따라서 채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채로의 시선과 출입이 자유로워서 안대청과 안마당이 매우 연결적으로 느껴진다.



사진 5. 안마당에 면한 안대청의 경계구조



(a) 사랑방 → 사랑대청 (b) 사랑대청 → 사랑방

사진 3. 사랑채의 방과 대청의 경계구조



사진 6. 안마당과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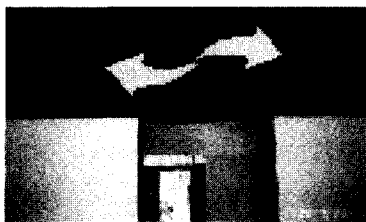


사진 4. 사랑방과 사랑방 사이의 개방된 상부



사진 7. 안채의 좌의량과 사랑채 배면

8) 양동마을 이향정은 102 cm, 이희태가옥은 128 cm. (실측 치수)

안대청과 외부공간 사이의 경계구조를 살펴보면, 관가정은 안방과 건넌방의 외벽 창호지문에 판문이 달려있다. 판문은 사람이 기거하는 방에는 거의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판문을 모두 닫았을 경우에 외부마당에서 바라본 관가정의 외관은 매우 폐쇄적이다.

판문은 시각적인 차단성을 넘어서 출입을 막는 방어적 성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방과 건넌방의 창호에 설치된 판문은 시선차단용이 아닌 방어를 경계구조이다.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안채의 창호가 방어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택을 둘러싸는 담장과, 안채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내부에도 담장을 둘러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가정의 경우 원래 주택을 둘러싸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채영역을 보호하는 담장도 없다. 그러므로 외부에 노출된 안채영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계구조라 할 수 있다.

3) 사랑채와 마당의 경계구조

뜰집에서는 안마당에 면한 사랑방의 후면에 벽장이 주로 있다. 이 벽장은 수납공간이라는 실생활상의 기능과 함께 안채와 사랑채 간의 시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채에서 사랑채영역을 바라볼 때, 사랑채 후면 벽장의 시각적인 차단감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사랑대청은 외부 마당으로 어떠한 물리적인 차단 없이 개방되어 있어 전통주택에서 가장 개방적인 공간으로 일컬어진다. 그리고 사랑방과 사랑마당사이에는 두 짝의 여닫이문과 미닫이문으로 二重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공간으로 향해 열려지는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여닫이와 미닫이의 二重구조는 외

부공간에 대한 선택적 투과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랑대청의 내부에서의 관점이다. 사용인이나 외부 방문객에 있어서 사랑채는 결코 개방적인 공간이 아니다. 마당에서 사랑채를 볼 때 관가정에서는 특히 위계성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168 cm에 달하는 사랑채의 높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외부공간에서는 내부공간으로의 시각적, 동선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사랑마당에서 사랑채로는 기단을 통해 바로 진입할 수가 없다. 이는 일반주택이 사랑마당에서 사랑대청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사랑마당에서 사랑채공간으로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두 공간 사이의 우열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채 내부에서는 외부공간에 대하여 어떠한 막힘없이 외부공간과 연결된다고 느낀다. 즉 사랑채와 전면 사랑마당 사이의 기단과 처마가 이루는 경계영역은 공간의 전이적인 역할보다는 투과의 일방향성에 의한 공간의 우열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이 강하다. 강한 우열관계는 사랑채 내부공간의 위계성을 느끼게 한다.

외부에서는 높은 기단과 함께 뒷마루 난간의 시각적인 차단감, 창호 나무문살의 시각적인 차단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사랑마당과 사랑방은 동일한 경계구



(a) 퇴간에서 외부로 (b) 사랑방에서 외부로

사진 8. 사랑채 내부에서 외부로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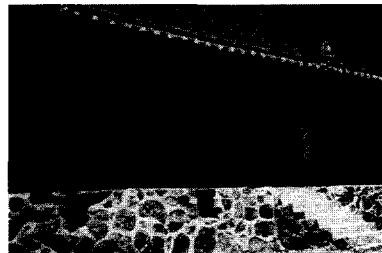


사진 9. 사랑채의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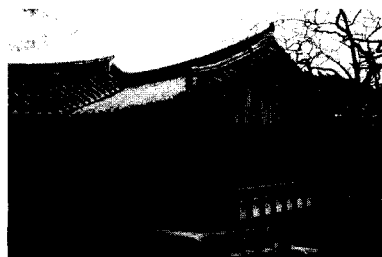


사진 10. 사랑채의 측·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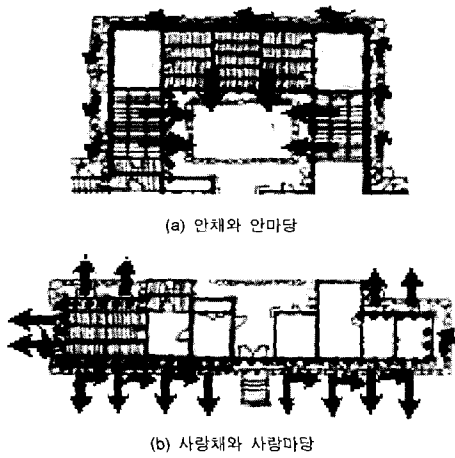


그림 6. 채와 마당의 경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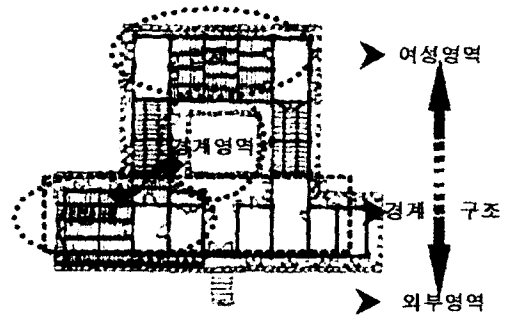


그림 7. 안채와 사랑채의 경계구조

조를 두고 내부와 외부에서는 정반대의 공간감을 경험하게 된다.

5. 안채와 사랑채의 경계구조

1)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구조

관가정은 ㄱ형의 안채에 一字形의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있다. 이때 안마당은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하는 경계영역의 역할을 한다. 외부공간인 안마당을 중간에 두고 안채와 사랑채가 거리를 뚫으로써 두 영역간의 감각의 전달이 완화된다.

그리고 주택의 전면에서는 안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안채 앞의 一字形 채가 안채의 영역을 보호해주는 경계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채에서 가장 개방적인 사랑대청은 안채공간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익랑에 의해 두 공간은 시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진다.

2)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구조

한국전통주택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남녀유별이라는 유교 실천윤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공간의 분리를 위한 경계구조를 구성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두 공간은 완전히 단절될 수 없으며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분리된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긴밀히 연결되는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다.

觀稼亭에서는 사랑대청과 사랑방에 접해있는 모서리부분의 마루로 사랑채가 안마당으로 연결된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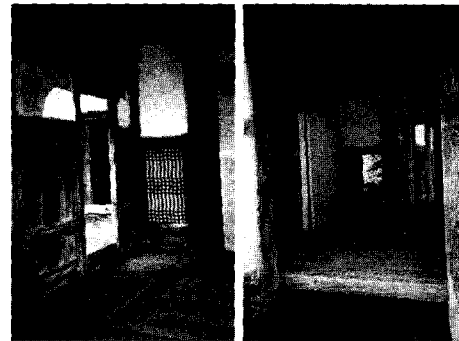


사진 11. 안채와 사랑채의 경계구조

마루는 轉移공간으로 경계영역이다. 사랑방과 사랑대청에서는 마루에 면한 문이 있어 개폐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안마당에 면한 마루면에는 벽이나 창호도 없이 개방되어 있어 이 마루공간과 안마당은 연결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사랑채 후면의 마루는 안채영역과 사랑채영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도 같은 전이공간이다.

III. 결 론

觀稼亭을 좁은 범위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서 넓은 범위로 확대하면서, 경계구조의 투과성과 투과의 방향성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안방, 안대청, 건넌방의 경계구조는 투과성이 낮은 재료사용과 작은 개구부 구성으로 각 방은 독립성을 확보한다. 사랑방과 사랑대청 사이의 경계구조는 창호로만 구성된 경계구조로 물리적 투과성이 높아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둘째, 안방과 직교한 마루의 경계구조는 사랑채의 공간구성과 동일한 구성으로 물리적 투과성이 높아 두 공간은 연결을 주목적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觀稼亭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내부로는 개방적인 구성을 외부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구성을 한 증정형적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안방과 건넌방 외벽의 판문은 외부동선의 출입을 막는 방어적 역할의 경계구조이다.

넷째, 사랑채와 외부마당 사이의 경계구조는 내부자의 관점에서는 개방감을 외부자의 관점에서는 차단감을 주는 양면성을 띠게 되어, 사랑채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우열관계가 형성된다.

다섯째, 안마당은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감각전달을 막는 경계영역이 되며, 사랑채는 외부로부터 안채영역을 보호하는 경계구조가 된다. 그리고 좌익랑

부분의 작은 마루는 안채와 사랑채 간의 동선을 연결하는 轉移역할의 경계영역이다.

이상의 연구는 전통주택의 공간성을 도출하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保坂陽一郎 著, 陳景敦 譯(1991), 境界의 形態 그 建築的 구조, 집문사.
2. 손기원(1991), 양동 관가정과 손동만가옥의 주거사적 연구, 연세대.
3. 김미나(1997), 조선시대 주거공간의 경계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론.
4. 이상우(1999), 동양미학론, 시공사.
5. 남상환(1996), 조선시대 경북 북부지방 口자형 지붕의 유형 및 형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석론.
6. 김화봉(1999),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박론, 1999.